‘파죽지세’ 광주FC, 인천 잡고 2위 도약 노린다

‘인천 킬러’ 아사니·이희균 “두려움 잊었다” 자신감 최상 “창단 후 가장 높은 곳 오르자”

28일 안방에서 4연승 도전

두려움을 잊은 광주FC가 안방에서 4연승을 노린다.

광주가 28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35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뜨거운 분위기에서 치르는 홈경기다. 광주는 앞선 울산현대와의 34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42분 터진 이건희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에서 1위 팀을 잡은 광주는 3연승과 함께 3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2위 포항스틸러스를 승점 2점 차까지 추격하는 등 광주의 기세가 매섭다.

광주는 이번 경기를 통해 K리그1에서 창단 후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겠다는 각오다.

앞선 라운드에서 울산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보탠 사이 2위 포항은 인천과 1-1 무승부를 기록, 승점 2점 차까지 좁혀졌다. 이번 라운드에서 광주가 승리를 하고 전북을 만나는 포항이 패한다면 2위 자리가 바뀌게 된다.

광주는 인천전 강세를 이어 승리를 노린다.

역대 전적에서는 광주가 7승 14무 6패로 근소하게 앞서있지만, 이정효 감독 체제에서는 FA컵 포함 2승 2무로 광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 승리를 기록한 두 경기에서 6골과 5골을 폭발시키면서 인천을 압도했다.

‘인천 킬러’ 아사니와 이희균에 시선이 쏠린다.

아사니는 지난 3월 18일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해트트릭에 성공하면서 5-0 대승의 주인공이 됐다. 8월 18일 인천 원정에서는 0-2로 뒤진 후반 23분 만회골을 넣어, 2-2 무승부에 기여했다.

최근 경기력도 좋다. 지난 10월 유로2024 예선에 나선 아사니는 체코와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알바니아의 3-0 승리 주역이 됐다.

이희균의 발도 매섭다.

2021년 이희균의 K리그 데뷔골 상대가 바로 인천이다. 지난 3월 5-0 대승 당시에도 이희균은 인천 골대를 가르면서 시즌 마수걸이 골을 장식했다.

부상으로 쉬어갔던 이희균은 울산을 상대로한 지난 21일 복귀전에서 이건희의 결승골을 도우면서 ‘이상 무’를 알렸다. 최상의 컨디션에 자신감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잘 준비해서 이긴 건 같다. 이제는 ‘버틴다’가 아니라 ‘넣는다’로 바뀌었다”며 앞선 울산전 승리를 이야기한 이희균은 “옛날의 광주가 아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가 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부족하기는 하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인천전 선전을 다짐했다.

수비도 탄탄하다.

경고 누적으로 쉬어갔던 ‘수비의 핵’이자 ‘캡틴’ 안영규가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온다. 울산전 승리에 이어 득녀까지 하면서 경사가 겹쳤다. 지난 24일 예쁜 딸을 얻은 안영규는 ‘아빠’의 책임감까지 더해 인천전 승리를 노린다.

앞선 울산전에서 조현우와 숨막히는 선방대결을 펼치면서 1-0 무실점 승리를 만든 이준의 활약도 든든하다.

무고사, 제르소, 음포쿠, 에르난데스라 등 인천의 막강 외국인 라인을 막는 게 광주의 숙제다. 광주를 찾는 인천에는 악재도 있다.

인천은 FA컵과 ACL 조별리그까지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산둥 타이산(중국)과 주중 ACL 조별리그 홈 경기에서 0-2로 패한 인천은 델브리지와 신진호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는 등 최근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광주가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인천을 압박하면서 뜨거운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28일 안방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4연승을 노린다. 사진은 앞선 울산전에서 이건희의 결승골을 도운 이희균. 〈광주FC 제공〉

‘3일간의 열전’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성황리 폐막

22개 시군 7000여명 기량 펼쳐 내년 해양치유도시 완도서 개최

전남 생활체육인들의 화합과 축제의장 ‘제35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3일간 열전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다.

지난 24일부터 3일간 순천시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도약하는 일류순천과 함께여는 행복 전남’이라는 주제 아래 전남 22개 시·군 7000여명의 생활체육인들이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경기를 치렀다.

7000여명의 선수단은 24개의 종목(정식 21, 민속 1, 시범2)에서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서로를 격려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개회식에서 나산실용예술중학교 취타대 악기 연주단을 선두로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 나를 위한 행복여행 in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보이며 입장한 함평군이 입장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우수상은 강진군과 영암군이 수상했으며, 나주시·보성군·구례군·고흥군·화순군이 장려상을 획득했다.

영광군은 스포츠7330상을 수상했다. 참여상인 화합상은 무안군에 돌아갔고, 질서상은 담양군, 응원상은 해남군, 감투상은 곡성군이 각각 차지했다.

우수종목단체상은 전남소프트테니스협회가 받았다.

시·군 대항전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 종목별 경기에서는 개최지인 순천시가 검도, 배구, 씨름, 체조, 태권도, 축구 등 6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에서 열린 ‘제35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3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다. 폐막식에서 대회기가 다음 개최지인 완도군에 이양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양시는 궁도와 수영, 족구에서 우승을 했고, 목포시는 야구·볼링·테니스·탁구 4개 종목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는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소프트테니스 등 3개 종목에서, 해남군은 농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민속경기 줄다리기는 나주시가, 시범경기인 바둑은 고흥군, 파크골프는 광양시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대회기와 패넌트기는 다음 개최지인 완도군에 이양됐다. 제36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은 내년 10월 ‘해양치유 도시’ 완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체육관계자 및 대회 관계자, 순천시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순천에서의 훌륭한 성과가 완도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024년 아시아퍼시픽 아마추어 골프대회 일본서 개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남자 아마추어 골프 최고수를 가리는 아시아퍼시픽 아마추어 챔피언십 2024년 대회가 일본에서 열린다.

아시아퍼시픽 골프연맹(APGC)은 26일 호주 멜버른의 로열 멜버른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대회를 2024년 10월 3일부터 나흘간 일본 시즈오카현 다이헤이요 클럽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아시아퍼시픽 아마추어 챔피언십은 2009년에 창설됐으며 APGC와 마스터스, 영국 R&A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다.

우승자에게 다음 해 마스터스와 디오픈 출전 자격을 준다.

이 대회가 일본에서 열리는 것은 2010년 이후 2024년이 14년 만이다.

이 대회에서는 2010년과 2011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우승했고, 김시우, 이경훈, 캐머런 스미스(호주) 등 지금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로 성장한 선수들이 출전한 바 있다.

올해 대회는 26일부터 호주 멜버른의 로열 멜버른 골프클럽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체전 시범종목으로 열리는 ‘슐런’.

장애인체전 이색 종목 ‘슐런’·‘쇼다운’ 눈길

슐런, 관문에 넣은 퍽 최종합산 쇼다운, 배트로 포켓에 볼 넣기 광양서 시범종목으로 열려

역대 최고의 대회라는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은 제104회 전국체전의 감동과 열정이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이색 종목이 있어 눈길을 끈다.

11월 3~4일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시범종목으로 치러지는 ‘슐런’과 ‘쇼다운’. 슐런은 폭 41cm, 길이 2m의 슐박이라는 사각형 보드 위에 나무토막으로 만든 원반 ‘퍽’ 30개를 밀어 넣어 점수를 얻는 종목이다.

보드 위에는 퍽을 넣을 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1부터 4까지의 숫자로 표시된 4개의 관문이 있다. 1경기는 3쿼터로 진행되며, 1쿼터 후 들어가지 않은 퍽을 수거해 2, 3쿼터를 추가 진행하고 관문에 들어간 퍽을 최종 합산해 승부를 가른다.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겨룰 수 있는 스포츠로 주의력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슐런 참가선수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청각장애다. 경기는 광양 성황스포츠센터 3층에서 펼쳐진다.

또 하나의 이색 종목인 쇼다운은 길이 366cm, 너비 122cm, 높이 78cm의 테이블을 두고 두 명의 선수가 펼치는 경기다. 양 끝에 골 포켓이 있고 중앙에 센터보드 스크린이 달린 직사각형의 테이블 위에서 소리가 잘 들리는 볼과 배트를 사용해 진행한다. 한 선수가 최소 11점에 도달했을 때, 상대 선수보다 2점의 점수 차로 벌리면 승리한다.

불투명한 눈가리개를 착용하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을 제거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스포츠 경기를 더욱 포용적으로 만든다. 쇼다운 참가선수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다. 경기는 광양 성황스포츠센터 2층에서 진행된다.

슐런과 쇼다운은 장애인 스포츠계에서 독특하고 열정적 경기를 선보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1월 3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도 내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된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재미국해외동포선수단 등 역대 최다 인원인 1만여 명이 참가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I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2관	30일,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황금 달걀 구조대
3관	용감한 시민
4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5관	30일
6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시수
9관	용감한 시민, 유앤미앤미
7관씨네커플	엑소시스트: 믿는 자, 화란
8관씨네커플	엑소시스트: 믿는 자,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더 넌 2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3-10-01(일) ~ 2023-10-29(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포커스 민아×슬기 퀸텟 재즈 콘서트

일시 : 2023-11-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